

시민에게는 힐링을, 화훼 농가에게는 희망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관내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고양국제꽃박람회는 가을로 연기되었지만,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 일원에서 화훼 소비 캠페인이 펼쳐진다.

정리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1997년부터 봄이면 어김없이 개최돼 매년 약 5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꽃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올해는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비록 꽃박람회는 개최되지 못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화훼 농가에게 힘을!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화역, 마두역, 화정역 등 고양시 지하철 역사 3개소에 장미로 만든 미니정원을 지난 3월 15일까지 운영했다. 또한 화훼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17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140개소에서 1T1F(1Table 1Flower) 운동도 진행한다.



FLOWER

꽃으로 힐링하세요! 화훼 농가 직판장 운영

울봄 호수공원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화훼 농가와 함께 만든 힐링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선인장, 관엽, 분화, 자생화 등 고양시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화훼류를 주로 활용해 연출한 아름다운 정원이 고양꽃전시관 광장과 주제광장에서 펼쳐진다. 작년 가을 올해 꽃박람회 개최를 위해 심은 톨립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호수공원에 28만 송이, 원당 화훼단지에서 30만 송이가 알록달록 피어나 지친 마음을 달래 줄 것이다. 또한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화훼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화훼직판장도 운영된다.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은 공기 정화 식물,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다양한 분화류,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 등 나에게 맞는 화훼류를 찾아 꽃과 함께 하는 특별한 일상을 만들면 어떨까?

화훼복합문화공간 플라워&북카페 개관

2020년 4월, 호수공원에서는 또 하나의 시민 힐링 공간 '플라워&북카페'가 개관된다. 고양꽃전시관이 약 3개월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다. 1층은 색채감이 돋보이는 서가와 벽면녹화, 화훼류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꾸며진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 공간이 마련되고, 코엑스몰 별마당에서 기증받은 9m 높이의 초대형 북트리도 만날 수 있다. 싱싱한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꽃집과 꽃 관련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플라워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호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2층에 문을 연다. 더불어 화훼복합문화공간에서는 작가 초청 북콘서트,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맞는 봄, 긴 겨울을 보내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힘차게 걸어가 보자.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9. 25(금)~10. 11(일)

장소 호수공원

